Symphony No. 6 in F major, Op. 68 "Pastoral"

- □□

정보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6 in F major, Op. 68 "Pastoral"

개요
곡명: Symphony No. 6 in F major, Op. 68 "Pastoral"
작곡가: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작곡 시기: 1807–1808년. 세부 수정은 1809년 봄까지 이어졌다.
공개 초연: 1808년 12월 22일, 빈 Theater an der Wien의 Beethoven 연주회. 작곡가 지휘. 헌정: Franz Joseph Maximilian Fürst Lobkowitz, Andreas Kyrillowitsch Graf Rasumowsky
장르와 범위: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전곡, 다섯 악장
기준 판본: Jens Dufner가 편집한 신베토벤전집의 음악 본문. 연구용 총보는 Henle HN 9816,
공연용 총보와 파트는 Breitkopf & Härtel.

IMSLP: Symphony No. 6, Op. 68

Wikipedia: Symphony No. 6 (Beethoven)

Ludwig van Beethoven의 *Symphony No. 6 in F major, Op. 68 "Pastoral"*은 다섯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교향곡이다 . 작품 전체는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 시냇가의 장면, 시골 사람들의 모임, 폭풍, 폭풍 뒤 목동의 노래를 다루는 악장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두 악장은 각각 끝맺고, 3악장부터 마지막
악장까지는 중단 없이 이어진다.

표제와 첫 공연

Beethoven이 출판사에 전달한 제목은 Pastoral-Sinfonie oder Erinnerung an das Landleben, 곧 전원 교향곡 또는 시골 생활의 회상이다. 이어 붙인 설명에서는 풍경을 그리는 것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다섯 악장의 표제에는 장소와 사건뿐 아니라 도착의 기쁨, 모임의 즐거움, 폭풍 뒤의 감사가 함께 들어 있다. 2악장 끝의 새소리와 4악장의 천둥은 구체적인 묘사에 해당하며, 그 앞뒤에는 선율과 반복을 길게
펼치는 악장들이 놓인다.

이 교향곡은 5번 교향곡과 나란히 작업되었고, 두 작품 모두 1808년 12월 22일 연주회에서 공개 초연되었다. *Pastoral*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현재의 5번 교향곡은 휴식 뒤에 놓였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는 *Pastoral*에 5번, 다단조 교향곡에 6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었다. 같은 연주회에는 피아노 협주곡 4번, 다장조 미사의 일부와 합창 환상곡도 포함되었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략 40분이다. 아래 악장별 시간은 Bernard Haitink와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2005년 11월 바비컨 실황을 기준으로 한 근사값이며, 이 녹음의 전곡은 약 42분이다.

악장	대략적인 시간
I	약 12분
II	약 12분
III	약 5분
IV	약 4분
V	약 10분

편성

구분	악기
목관	Piccolo,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금관	2 Horns, 2 Trumpets, Alto Trombone, Tenor Trombone
타악기	Timpani
현악	Violin I, Violin II, Viola, Violoncello, Contrabass

악기들은 악장마다 다르게 참여한다. 트럼펫은 3악장부터, 트롬본 두 대는 4악장부터 들어온다. 피콜로와 팀파니는 폭풍을 그리는 4악장에만 쓰인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이 두 악기가 빠지고 트롬본은 남아 목동의 노래에 합류한다.

다섯 악장의 진행

I. Erwachen heiterer Empfindungen bei der Ankunft auf dem Lande. Allegro ma non troppo

시골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즐거운 감정이라는 표제가 붙은 바장조 악장이다. 낮은 현악기의 지속음 위에서 바이올린이 여리게 선율을 시작한다. 네 마디를 연주한 뒤 잠깐 멈추는 이 구절에는 이후 되풀이하고 변형할 짧은 리듬과 선율 조각들이 담겨 있다. 한 조각을 열 마디 동안 반복하는 대목에서는 음량이 커졌다가 작아지고

, 가장 크게 울릴 때 바순이 합류한다.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에서도 이런 반복이 계속된다. 두 번째 주제는 악기가 조금씩 더해지면서 소리가 커지고, 한 화음에 오래 머무는 구간에서는 서로 다른 리듬 묶음이 겹친다. 발전부는 첫 주제에서 가져온 짧은 동기를
거듭 사용하면서 화성을 바꾼다. 내림나장조에서 라장조로, 사장조에서 마장조로 옮겨 가는 3도 관계의 전조가 긴 반복 사이에 변화를 만든다.

재현부에서 처음의 선율과 조성으로 돌아온 뒤, 코다는 관악기의 선율을 이어 간다. 클라리넷 독주에는 바순이 흔들리는 듯한 반주를 붙인다.

II. Szene am Bach. Andante molto moto

시냇가의 장면을 다루는 내림나장조 악장이다. 제 2바이올린과 비올라, 독주 첼로 두 대가 잘게 나뉜 음형을
계속 연주하며 물결 같은 움직임을 만든다. 이 두 첼로는 나머지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맡는 저음과 따로 적혀 있다. 바이올린의 긴 선율은 이 지속적인 움직임 위에 놓이고, 목관악기가 그 사이에 응답한다.

바이올린이 제시하는 두 주제는 발전과 재현을 거친다. 긴 선율에서 떼어 낸 조각들이 반복되고, 재현으로
이어지는 대목에는 바이올린의 트릴과 짧은 반복음이 촘촘해진다 . 마지막의 새소리가 나오기 전부터 이런
음형이 물결 반주와 함께 움직인다. 재현부에서는 앞서 나온 선율이 더 두터운 편성으로 돌아온다.

끝 가까이에서는 흐르던 반주가 잠시 멎고 세 종류의 새소리가 드러난다. Beethoven은 플루트에 나이팅게일 , 오보에에 메추라기, 두 클라리넷에 뻐꾸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새소리 대목을 거친 뒤 짧은 코다가 악장을 끝맺는다.

III. Lustiges Zusammensein der Landleute. Allegro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을 그리는 스케르초다 . 3박자의 짧고 끊어진 현악 구절에 매끄러운 현악과 목관 구절이 답하면서 시작한다. 뒤이어 오보에는 반주의 박을 비껴 선율을 내고, 바순은 짧고 단순한 음형으로
간헐적으로 끼어든다. 바이올린이 유지하는 박과 관악기의 어긋난 진입이 마을 악대의 익살을 만든다. 트럼펫도 이 악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어 박자가 2/4로 바뀌고, 더 빠르고 강하게 발을 구르는 듯한 춤이 나온다. 3박자의 모임과 2박자의 춤을 거친 뒤에는 이 큰 구간 전체가 한 번 더 반복된다. 마지막에는 3박자의 첫 부분이 짧게 돌아온 뒤 끝에서 Presto로 빨라진다. 춤이 급해지는 사이 낮은 현악기의 떨림이 끼어들며, 독립적인 종결 없이 폭풍으로
넘어간다.

IV. Gewitter, Sturm. Allegro

폭풍은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아주 여린 떨림, 바이올린의 짧은 빗방울 같은 음으로 시작한다. 이어 바단조의
강한 합주가 나오고, 낮은 현악기의 서로 다른 음형이 겹친다. 불안정한 화성과 급격한 강약 변화가 폭풍을 키우며, 팀파니의 강한 타격이 천둥을 더한다. 피콜로의 높은 소리와 트롬본의 진입으로 음향이 더욱 확대된다.

거센 음악은 두 차례 다가왔다가 물러나는 흐름을 보인다. 피콜로는 두 번째 고조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끝에서는 저음의 움직임과 천둥이 차츰 잦아든다. 처음의 빗방울 음형이 장조의 넓은 찬가로 바뀌며, 플루트가
위로 올라가는 음계를 연주한다. 이 음계는 악장을 닫는 대신 마지막 악장의 클라리넷으로 연결된다.

V. Hirtengesang. Frohe und dankbare Gefühle nach dem Sturm. Allegretto

목동의 노래와 폭풍 뒤의 즐겁고 감사한 감정을 다루는 바장조 피날레다. 비올라의 지속음 위에서 클라리넷이 짧은 신호를 내고, 호른이 이를 받으면 첼로의 지속음이 더해진다. 이 도입을 거쳐 제 1바이올린이 6/8박자의 주요 선율을 시작한다. 선율은 세 차례에 걸쳐 점점 더 두터운 편성으로 제시된다.

중심 노래 뒤에는 트릴과 스타카토를 포함하는 더 활발한 음형들이 이어진다. 발전과 재현을 거치는 동안 주요 선율은 길이와 악기 배치를 달리하며 돌아온다. 짧아진 선율을 제 2바이올린이 피치카토로 연주하고, 제 1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대화를 거쳐 호른이 강하게 받는 대목도 있다. 같은 노래가 반복될 때마다 관현악 안에서 맡는 악기가 달라진다.

긴 코다는 노래를 크게 펼쳤다가 음량을 낮춘다. 현악기의 sotto voce와 목관의 dolce, 약음기를 낀 호른 독주가 사라져 가는 소리를 이어 간다. 그 뒤 전곡은 두 번의 fortissimo 화음으로 끝난다.

출판 정보와 자료

Breitkopf & Härtel은 1809년 5월 관현악 파트를 처음 출판했다. 첫 인쇄 총보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으며 1826년 5월에 공고되었다 . 파트 초판과 총보 초판 사이에는 17년의 간격이 있다.

자료에는 출판 준비와 실제 연주를 거친 수정 과정이 남아 있다. 1808년 9월 말 출판용 필사 총보가
라이프치히에 도착한 뒤에도 Beethoven은 자필 총보와 연주 파트를 계속 고쳤다. 공개 초연을 위해 만든 별도의 필사 총보에도 마지막 수정이 들어갔다. 먼저 출판사로 간 총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초판에는 이런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작업 자필 총보는 본 Beethoven-Haus의 BH 64에, 초연에 사용한 필사 파트는 빈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에 보관되어 있다. 초연용 필사 총보는 류블랴나 Narodna in Univerzitetna Knjižnica에 있으며, 이 자료의 원래 4악장은 현존하지 않는다. Dufner의 비평판은 자필만으로 음악 본문을 정하지 않고, 연주 파트와 초연용 총보에 남은 수정도 함께 반영한다. Henle HN 9816은 2013년 신베토벤전집의 이 음악 본문을 따른다.

연주자들이 설명한 선택

시냇가 악장의 박과 빠르기. Roger Norrington은 자신의 글 Beethoven Speeds에서 2악장의 메트로놈
표시인 점 4분음표 50을 강조한다. 세 개의 8분음표를 묶은 박이 Andante의 기준이며, 개울이 계속 흐르는 움직임을 이 빠르기와 연결한다. Manfred Honeck도 2022년 음반 해설에서 같은 수치를 출발점으로 삼지만, 화음 진행과 플루트 ·오보에 선율의 일부에는 미세한 가속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관악기 배치와 피날레의 독주 시작. Iván Fischer는 Michael McManus가 진행한 2014년 Gramophone 인터뷰에서 , 2악장에 착안해 관악기를 현악기 사이에 흩어 배치했다고 밝혔다. 관악 독주자가 주변 현악기의 프레이징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하려는 선택으로, 자신의 실연과 녹음에 적용했다. 피날레에서는 클라리넷과
호른의 독주 뒤에 나오는 첫 바이올린 선율도 제 1바이올린 수석인 악장의 독주로 시작하고, 다른 현악기가
점차 합류하도록 했다. 이 독주 시작은 원전에 더한 선택이다. Fischer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개인의 해방을 이

선택과 연결한다 .

새소리와 춤 , 폭풍의 음색 . Honeck은 2017년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실황을 담은 음반의 해설에서 , 2악장 새소리 대목을 준비하며 연주자들에게 실제 새의 울음소리를 듣도록 요청했다고 기록한다 . 다른 악장에서는 음색을 더하는 개입을 했다 . 원래 폭풍 악장에만 쓰이는 피콜로를 1악장 42마디와 3악장 173마디의 플루트 선율에 보탰고 , 3악장 165마디부터는 강하게 강조되는 음에 맞춰 실제 발 구르기를 더했다 . 폭풍에서는 64마디의 현악기에 활을 브리지 가까이 대는 주법을 추가하고 , 팀파니에 나무 채를 사용했다 . 이 선택들은 원전의 편성과 연주 지시에 Honeck이 더한 것이다 .

마지막 저음에 주는 시간 . Dennis Polkow가 취재한 2022년 Chicago Symphony Orchestra 리허설에서 Riccardo Muti는 피날레의 끝을 두 방식으로 시험했다 . Furtwängler처럼 길게 늘이는 종결과 Toscanini처럼 빠르게 통과하는 종결을 악단이 각각 연주했다 . 처음에는 늘이는 쪽에 조금 더 기울었지만 , 리허설 뒤에는 두 방식의 중간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세 강한 음이 분명하게 울릴 만큼 시간을 주려는 판단이었다 .

주요 레코딩

- **Otto Klemperer / Philharmonia Orchestra, 1957**년 녹음 **, EMI·Warner Classics.** *BBC Music Magazine*의 비교 비평은 첫 악장의 느긋하면서도 목적이 분명한 진행 , 2악장의 흐름과 새소리 , 3악장의 무게 있는 춤을 높이 평가한다 . 피날레는 비교적 빠르게 나아가며 코다를 늘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마주 보는 두 바이올린군이 성부를 분리해 들려주는 배치도 짚는다 .
- **Roger Norrington / London Classical Players, 1987**년 녹음 **, 1988**년 **EMI** 발매 **.** Chris de Souza는 *BBC Music Magazine*의 작품 가이드에서 교향곡 1번과 결합한 초기 음반을 선정했다 . 시대악기와 지휘자의 활력이 만드는 2악장의 선명한 새소리 , 3악장의 익살스러운 바순 , 4악장의 거센 폭풍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
- **Manfred Honeck /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2017**년 **Heinz Hall** 실황 **, 2022**년 **Reference Recordings** 발매 **, FR-747.** David Gutman의 *Gramophone* 평은 빠른 진행 , 가벼운 현악 , 선명한 새소리와 세밀한 녹음에 호의적이다 . 한편 피콜로 추가와 발 구르기는 논쟁을 낳을 선택으로 본다 . David A. McConnell의 *The Classic Review* 평은 악단의 정밀함과 목관 음색을 칭찬하면서도 , 피콜로 보강과 반복되는 발 구르기는 과한 덧칠로 들린다고 비판한다 .

주요 자료

- Beethoven-Haus 작품 기록 , BH 64 자필 총보 해설 , 1809년 3월 28일 편지의 소장·내용 설명 : 작곡 시기 , 헌정 , 공개 초연과 수정 자료 .
- Jens Dufner, Henle HN 9816 서문 , 비평 주석 : 출판 연대 , 자료 계통 , 2악장 빠르기와 독주 첼로 , 3악장의 반복 .
- Breitkopf & Härtel, Dufner 판 공연 자료 : 편성 , 전곡 시간 , 출판용 제목과 현행 공연판 .
- Philharmonia Orchestra, 1808년 연주회 재현 프로그램 , 구판 Grove 사전의 초연 프로그램 전사 : 당시 연주 순서와 교향곡 번호 .
- Jan Swafford, Boston Symphony Orchestra 작품 해설 , James M. Keller, San Francisco Symphony 작품 해설 , Eastman School of Music, Beethoven Symphony Basics: 주제 , 반복 ,

악기 참여와 다섯 악장의 연결.
Marianne Williams Tobias, Indianapolis Symphony Orchestra 작품 해설: 2악장의 주제 ·발전 · 재현과 4악장 폭풍의 진행.
Misha Donat, Hyperion 작품 해설, Lindsay Kemp, LSO Live 음반 해설: 악장별 진행과 연결. Chandos의 Haitink / LSO 녹음 정보: 악장별 시간과 2005년 세션.
Roger Norrington, Beethoven Speeds, London Classical Players 회고: 2악장의 박과 빠르기, 시대악기 악단의 연주 접근.
Michael McManus의 Iván Fischer 인터뷰, Gramophone, 2014년 10월 20일: 관악기 배치와 피날레 독주 시작.
Manfred Honeck, FR-747 북클릿, Reference Recordings 공식 보도자료: 빠르기와 음색에 더한 선택, 실황 녹음 ·발매 정보.
Dennis Polkow, Newcity Music, 2022년 9월 9일: Muti와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종결부 리허설 취재.
BBC Music Magazine의 주요 녹음 비교, Chris de Souza의 작품 가이드, Norrington 초기 음반 디스코그래피 : Klemperer·Norrington 녹음의 독립 평가와 제작 연대.
David Gutman, Gramophone, 2022년 8월호, David A. McConnell, The Classic Review, 2022 년 8월 2일: Honeck 녹음의 해석과 추가 음색에 대한 독립 비평.